

# 현대불교

지역 오로지 정통 수행 직설사원을 곁들여는

**지리산 아생처로 만듭니다**

• 동불수반주지정 한국정통직설개방사업제  
• 주지 파문죄의 처벌대응을 위해 생안기 보급(생안기 소액자 제외)

0595183-9665 / 83-3478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 이자가 오르면 모은금리로 대입하는 특별금리  
• 교육자금 주택자금 의료자금 노후생활자금을 다양한 대우서비스 제공

국민은행

영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중구 경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 팩스: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11월 22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금주의 법구**

고귀한 육은 땅속에서 나고  
칭찬한 계(戒)는 선행에서 나온다.  
(열반경)

**법회 안내**

불광사 (02)369-5367

신도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가사법회 셋째 주 일 오전11시  
장년법회 매주 일 오전9시  
학년법회 매주 일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연불사 (02)338-9385

산중법회 매월 1일(음) 오전11시  
관음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관주 민덕사 (062)652-4020

연광법회 매월 1~3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장년법회 매주 보 오후7시  
중·고등학생법회 매주 일 오전9시

대구 은척사 (053)653-1572

가사법회 매월 1·3주 수  
오후7:30분

장년법회 매주 일 오후7시  
고등학생법회 매주 일 오후7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인동 유일사(0571)858-0198

장기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인동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이리 관음사 (0653)54-1578

일련신도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한계법회 매주 수 오후2시  
장년법회 매주 수 오후7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제주 죽림정사(064)56-1345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주부경전읽기법회 매주 화  
오후 2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  
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  
(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금주 20면 발행**

구독신청부 운영자료  
305-4464

우체국 계정번호  
0100-11-0255213

## 日스님 정유재란 참전일기 공개

### 日軍 만행 한탄·수행자 번뇌 적혀...임란연구 사료적 가치

####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400년만에 번역

“후세에 당할 고통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지고 있는 죄과야 말로 결국은 지옥행의 열쇠가 된다”(1597년 11월 13일)

백년전 정유재란 당시 군의 관으로 종군했던 일본인 스님이 쓴 난중일기의 일부이다.

거듭되는 일본의 과거사 망언으로 한·일 양국이 관계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수행자의 시각에서 침략

을 공개했던 것을 이번에 동국대 부설 일본학연구소(소장 신용태)가 자체 학술지인 《일본학》 제14호에 번역 게재함으로써 국내에 처음 알려지게 됐다.

《조선중군일기》는 경녕스님이 정유재란 당시 구주성 상주로 부러 조선동행을 권유받아 경상도 하동 근처에 처음 상륙한 1597년 6월 24일부터 남한 전진 진천 상주들을 거쳐 부산에서 그향인 구저(巨津)로 퇴각하는 1598년 2월 2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중군을 통해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악랄·공주립·죽음 등을 불심의 원력으로 다스린 경녕스님의 수행모습이 잘 나타나있다. 그리고 지리산에 이르러 화염에 싸인 남원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전쟁터에서 저질러지는 일본군의 만행을 깊이 한탄하면서도 자신을 꾸짖는 모습중 수행자의 심경을 진솔하게 표현했다.

또한 “승리의 기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결한 자를 추스리고 퇴각에 이르러 부처님의 가르침에 힘입어 가족과 친구를 만날 수 있다”며 크게 기뻐하는 모습에서 전쟁

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점차적으로 승화시켜가는 인간적 고뇌가 상세히 나타난다.

경녕스님의 일기를 번역한 신용태교수는 “《조선중군일기》에는 조선인과 일본인이라는 적대적 관계를 탈피해 불자로서 동병상련을 느끼고 전쟁터에서 체험한 분노를 불교의 정서로 승화시키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고 말했다.

신용태교수는 또 “《조선중군일기》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진솔하게 기록한, 극히 드문 자료로 임진왜란 연구에도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기자)



수종교 장짜민주석(사진 중앙)이 지난 16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불국사 부주지 성타스님의 환영속에 불국사를 참배, 경내를 돌아보고 있다.

## 中장짜민주석 불국사 참배

### 월주스님 대장경 영인본 48권 답례

한국을 방문중인 중국의 장짜민주석이 지난 16일 오전9시 40분 경주 불국사(주지 설조)를 참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불국사 부주지 성타스님이 맞이한 불국사에서 장짜민주석은 합장한 손으로 인사하면서 “답례가 무척 아름답다”는 말로 방문소감을 피력했다.

이날 월주스님이 “중국불교

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하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보존하여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공영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짜민주석은 “중국 상해에 있는 명양(明陽)스님과는 자주 만나 의견을 교환한다”고 답변

## 신행수기 공모 25일 마감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주년을 맞아 신행수기를 공모합니다. 가슴에 묻어두기엔 너무나 아쉬운 신행의 이야기들을 불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신행수기 공모는 이웃과 함께 피안의 길을 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푸짐한 상금이 준비되어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도 실리게 되는 신행담 공모에 적극 동참 바랍니다.

△ 공모내용 : 생애속 수행이야기·부처님 가르침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등  
△ 원고로량 :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 접수마감 : 96년 11월 25일  
△ 접수처 : 서울 중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 화 : 722-4162 팩스 : 737-0698  
△ 참가대상 : 불지면 누구나 동참 가능  
△ 당선작 발표 : 현대불교 96년 신년호 지면 당선작은 본지에 연재

△ 시상내용  
·유미상 : 상장, 상품(부처님상 조각 순금 메달)  
·종단협의회장상 : 상장, 상품(부처님상 조각 순금메달)  
·본사 사장상 : 상장, 상품  
·특별상 : 상장, 상품  
·응모지원인 : 기념품 증정

현대불교신문사

## 목어

열라대왕앞에 한 비구니스님이 웃을 입지 않은 채 나왔다. 열라대왕은 어리둥절하여 그 사연을 물었다.

“소승 게으른 탓으로 몸 가릴 못 한벌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게을러서... 아무래도 무슨 사연이 있는게로구나” 열라대왕은 사람의 한평생을 환히 볼 수 있는 거울(明鏡臺) 앞에 스님을 서게 했다.

이때 거울속에서는 세한

눈보라가 일었고, 비구니스님은 울고 있는 여자 여인에 게 승복을 벗어 주었다. 이 광경을 본 열라대왕은 절절 웃으며 스님을 극력으로 인도했다.

열라대왕은 노하여 명을 내렸다.

“이자의 등쪽에 지옥열 도장을 찍어라”

요즘 국민의 시선을 끌고 있는 TV드라마 ‘제4공화국’과 ‘코리아 게이트’화면이 명경대를 연상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15년전 이나라 역

사를 바꾼 주역들과 그 주변 인물들은 화면속의 자신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느낄까.

살아서 보는 명경대. 그당시 목에 힘주어 인물이 오늘 고개속인 채 구속되고, ‘프레기 같은 놀음’을 외치다 떨어진 말이 영웅대접 받음 줄 뒤 앉았으며, 명경대 필름은 지금도 풀이가고 있다. 세월의 고속화로 인해 이마 오늘의 정치상황은 15년보다 더 빨리 명경대에 비춰질지도 모른다.

역사와 인과가 무서운 줄 알고, 살아서 보는 명경대가 두렵게는 빠르게 살자.

## 살아서 보는 명경대

## 조계종 원로의원 서운스님 열반

조계종 전 총무원장이자 명예 원로의원인 아목당 서운(二木堂 瑞雲)스님이 지난 15일 새벽 1시 45분 서벌당에서 세수 92세 법랍 45년을 일기로 열반했다.

(권력기서 19면)

스님은 62년 조계종 비상중단에 총무원장 직무대리를 역임하는 등 중견중책을 맡았으며

82년 원로회의 의원으로 추대됐다.

스님은 “이제 몸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니 차가운 달 반산이 진리의 몸이로다”는 입증계를 남겼다.

스님의 영결식은 19일 지지사 민덕전 대법당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종도들이 애도하는 가운데 봉행됐다.

안담이 두번째이다. (경주=이윤호 기자)

“성보도난 징계 全無”  
호법분과위 감사서 밝혀

도난당한 송공사 16국사진영(보물1043호)의 행방이 아직도 묘연한 가운데 성보도난에 관한 징계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보관리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는 종정 감사서 보고하며 “올해 성보도난이 총 22건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회부한 건이 없었고 성보도난 대부분의 잔을 처리보류 하는 등 성보도난건 처리가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승려법 제48조 11호에 의하면 총무원으로서 귀중품을 도난당한 자는 공권징지 5년이하 3년이상에 처할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나 이 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열린마당 조계종 개혁집행부 1년 2년

‘진짜 보통사람’ 조환진 거사 19년

## 선경의 세계화전략은 SUPEX추구입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는 이제 눈앞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세계가 보호막 없는 단일 시장으로 바뀌고 세계 각 기업들이 무한경쟁에 돌입합니다. 선경은 이러한 시대를 앞서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세계화 전략으로 수펙스를 추구해왔습니다.

수펙스(SUPER EXCELLENT 수준)추구 —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고수준에 도전하는 선경의 경쟁우위 전략입니다.

**SUNKYONG**  
鮮京그룹